

# 2007년 종돈업계 총결산과 향후 전망

## 1. 머리말

2007년도 종돈업계의 화두는 한·미FTA타결(4월 2일)과 한·EU FTA 협상 추진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국익을 위해서 어찌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양돈 강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나라 종돈(양돈)업계는 생업을 계속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돼지 생산비는 89,360원으로 우리나라의 51%, 모든 두당 출하두수는 17두로서 13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돈 MMA물량도 종돈업계의 요구에 따라 1,850두에서 3,000두로 증량되었으나 양돈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종돈농가가 수입을 포기하거나 상황을 관망하는 경우가 늘면서 물량 소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이대로 포기 할 수는 없다. 종돈업경영인회에서 한·미FTA 종돈부문(돼지AI포함) 대책(안)을 작성하여 양돈협회와 농림부에 제출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 2. 종돈업계 결산

### 가. 한·미FTA타결에 따른 종돈부문 대책(안) 작성 제출

종돈장(142개)과 돼지AI센터(50개)는 양돈농가(11,300개)에 종돈과 정액을 공급하면서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종돈업(돼지AI포함)은 양돈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돈업의 승패는 종돈의 능력과 위생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현 기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능력개량사업은 고급인력과 시설 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설개선과 돈군 재조성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돈 개량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종돈업경영인회에서 마련한 대책(안)은

1) 종돈장·돼지AI센터 청정화 사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질병검사 강화, 청정화를 위한 돈군 재조성)

2) 핵돈AI센터 설립(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한국형 종돈 육종)

3) 돼지AI센터 운영개선(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능력 옹돈 구입)

4) 돼지개량사업(혈통등록 및 능력검정, 수돼지 검정, 종돈수출, 종돈장 육종개량 컨설팅)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일부는 '08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추가적인 반영은 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나. 국제 종돈개량세미나 개최

### 1) 프랑스 및 미국 종돈 전문가 초청 세미나

종축개량협회는 지난 5월 17일 '06농장검정결과보고와 함께 프랑스의 종돈 전문가를 초청하여 종돈개량체계, 종돈장 위생관리 및 PSY30두 달성을 위한 핵심포인트에 대한 세미나를, 10월 24일에는 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 시스템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선진 육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하여 많은 종돈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프랑스는 돼지 개량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서 많은 나라에 종돈과 돈육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STAGES 프로그램에 의한 종돈검정과 유전능력평가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선 기술은 하루속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고유의 종돈(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 2) 종돈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세미나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종축개량협회는 전문가, 종돈수출협의회 회원농가 등과 함께 태국 및 베트남에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종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시장의 문을 노크하였다. 종돈의 수출사업은 우리나라의 종돈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종돈의 수출은 종돈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사양기술, 기자재, 약품 및 첨가제 등 관련산업의 여러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에는 태국과 베트남의 종돈(양돈)농가, 농림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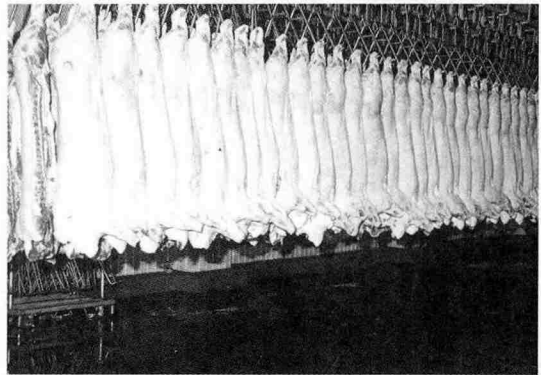
### 다. 제2회 종돈전시회 개최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기간(9. 12~14) 중 제2회 종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9개 종돈업체(가야육종, 구시축산, 경북종돈, 금보육종, 농협종돈 사업소, 다비육종, 대상, 선진, 한국PIC)가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종돈 36두를 출품(업체별 암 3두, 수 1두)하여 해외에서 찾아오는 바이어와 국내 양돈농가에게 종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량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는 한국종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국내 양돈농가에게는 검정성적, 외모, 강건성, 지제, 유두배열 등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종돈을 보여줌으로서 후보돈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행사는 양돈산업에 대한 각종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양돈인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상설 전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계류장 시설을 협찬받아 추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역과 위생문제를 고려하여 전시 후 출품한 종돈은 모두 도축처리하였다. 앞으로도 전시회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양돈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 라.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

종돈개량 방향과 목표는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다. 지금까지는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육 및 산자능력 개량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돈육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육질개량을 통하여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돼지도체의 육질등급판정으로 종돈개량목표도 현재의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산자수 등에서 육질항목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육질을 종돈의 능력평가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병용검정을 실시하여 거세돈과 암돼지 등은 도축하여 육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선발지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종돈업계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 마. 등록, 검정 등 개량사업 추진

10월 31일 현재 등록사업은 순종 64,144두(복), F1 185,385두(복), 합성돈 등 20,283두(복) 로서 총 269,812두(복)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심사는 도입돈 위주로 1,446두, 검정은 42,493두를 실시하였고, 종돈 이동은 145,915두로 나타났다.

'06년도 같은 기간 대비 등록은 4.6%, 심사는

3.5%, 검정은 3.3%, 이동 및 재발급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등록, 심사, 검정사업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재래돼지 산업화 및 등록 계통조성돈 AI센터 분양

축산과학원에서는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복원하여 보존하고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혈통의 순수성이 미흡하지만 고품질 돈육 생산용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재래돼지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육질에 있어서 버크셔종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과거에 재래돼지의 산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크셔종과 교잡을 해왔기 때문이다. 맛의 차이가 없다면 산육능력과 산지능력이 우수한 버크셔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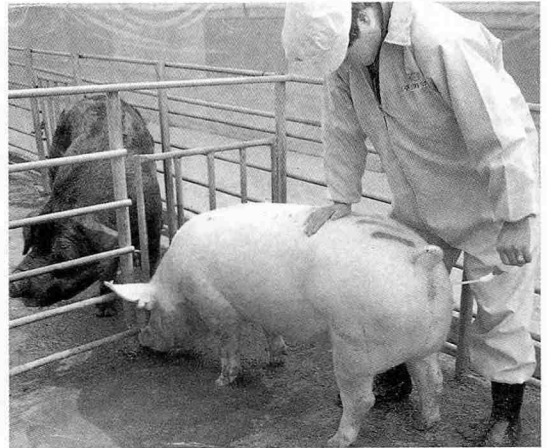
계통조성사업은 고급인력, 시설 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종돈장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축산과학원에서는 7세대를 거쳐 계통조성을 완료한 축진 등록을 돼지AI센터에 분양하였다. 계통조성돈의 특징은 체장과 체고가 우수하고, 활력 있고 지제가 튼튼하며, PSE유전자를 제거하였고 PRRS가 없는 종돈이다.

### 사. 기타

-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PRRS를 제2종전염병에서 제3종전염병으로 전환하고 살처분이나 이동제한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종돈업등록업체와 돼지AI센터는 기존의 3가지 질환 외에 추가로 PRRS와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종축개량협회는 유전자 공유를 통한 농장간 전국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능력을 평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돈농가에 서비스해주고 있다.



## 3. 향후 전망

### 가. 종돈업의 전문화

종돈업체의 수는 현재 142개이며 기능별로는 GGP 19개소, GP 66개소, GGP+GP 57개소이다. 57개의 종돈장이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종돈개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돈장도 GGP와 GP농장으로 전문화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품종별로 전문화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품종별 전문 종돈장이 출현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종돈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GGP농장은 농장단위로 개량을 해나가고, 그 외 중소규모의 종돈장은 연합하여 개량과 평가체계를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우수한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정확한 능력평가와 비교를 위해서는 종돈장간에 혈연연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돈AI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형 종돈 육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GGP종돈장은 종돈의 능력 및 육질개량을 책임지게 되고, GP농장은 F1을 생산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종돈업 등록시 GGP와 GP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감독도 기능에 맞게 차별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나. 종돈개량 및 평가체계

종돈개량 및 평가체계는 국가단위개량체계와 농장단위개량체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개량체제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장단위로 개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장단위로 종돈을 확보하여 개량하기 때문에 타 농장과 능력비교를 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은 것이다. 덴마크가 대표적인 국가단위개량체계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혼합형 개량체계라 할 수 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은 돈군 규모가 큰 국가단위개량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GGP농장은 농장단위로 개량을 해나가고, 그 외 중소규모의 종돈장은 연합하여 개량과 평가체계를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개량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사업과 핵돈AI센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돼지개량 네트워크(Net-Work) 사업은 부계품종 위주로 다수의 종돈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종돈을 육종함으로써 종돈수입을 줄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종돈을 육종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는 한국형 종돈 육종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핵돈AI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핵돈AI센터는 많은 물량의 종돈 수입을 줄여 외화를 절약하고 해외의 악성 질병유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농장간 혈연 연계를 통하여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종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임이 틀림없다.

종돈농가에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핵돈AI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많은 두수의 종돈 수입은 불가피하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종돈 능력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돈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양돈**